

나는 83세 여고생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국졸’ 장광자씨, 검정고시 마다하고 초등학교 과정부터 차근차근 동구 소태동 지세움서 고교 1학년 과정 “삶의 영역이 넓어졌어요”

“83세 여고생입니다.”

70여년 전 국민학교 졸업 후 배움에 대한 갈증으로 다시 초·중학교를 거쳐 고교에 다니고 있는 만학도 장광자(여·83·광주시 동구 학동)씨의 당당한 말이다.

5년 전부터 장씨의 매일 아침 일과는 책가방에 교과서를 담은 것이다.

다른 만학도와 달리 장씨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매일 등굣길에 나서기 때문이다.

대부분 검정고시로 교육과정을 ‘프리패스’하기도 하지만 장씨는 직접 학교를 다니며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것이다.

장씨는 함께 살고 있는 딸 강성례(54)씨의 권유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70여년 만에 다시 책가방을 멘 장씨의 삶은 학교를 다니기 전과 후로 크게 달라졌다.

매일 오전 9시 등교해 오후 1시까지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과지만,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젊어진 기분이라고 장씨는 강조했다.

월산국민학교에서 6년 과정을 마쳤지만 돈이 없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장씨는 2019년 다시 월산초등학교에 입학해 1년을 더 다닌 끝에 졸업장을 받았다.

중등 교육 자격을 얻게된 장씨는 금호 평생교육관을 3년간 다니며 중학 3년 과정을 거쳤다.

올해는 동구 소태동 지세움에 입학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밟고 있다.

장씨는 “6·25 전쟁 당시 집에 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은커녕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다”며 “딸의 권유로 학교를 다니게 됐지만, 검정고시에 자신이 없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녀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1983년부터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전복과 해삼, 꼬막 등을 파는 상인이었다. 밤낮으로 일하며 1남 2녀의 자식들을 키웠지만 6년 전,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

지세움에서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학생이 공부한다. 장씨는 최고령 ‘말언니’다.

장씨는 국민학교 당시 도시락을 싸서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구마 등을 챙겨 학교에서 나눠먹기도 한다.

장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 얘기도 허물 없이 나눌 수 있어 참 좋다”고 말했다. 매년 자식 자랑, 돈 자랑뿐이라 경로당이 꺼려졌지만, 학교에 가면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뜻있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 장씨는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돈을 모아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밥도 사 먹는다.

장씨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한국사’다. 해남에서 태어난 장씨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공부할 때면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상하곤 한다. 격동의 현대사를 배울 때면 온 몸으로 겪어온 세월들이 하나둘 생각나며 정신이 또렷해진다고 설명했다.

장씨의 공부 열정도 뜨겁다. 시험기간이면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교과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한다. 잠들기 전까지 메모장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딸 장씨는 전했다.

또 장씨는 건강하지 않으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생각에 운동을 시작했다. 이전 매일 아침 등교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



장광자씨가 14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세움 앞에서 웃어 보이고 있다. <딸 강성례씨 제공>

이다. 장씨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것은, 삶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라며 “다양한 사람들 만나,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웃어보였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BTS 제이홉 연상...전남 인재육성 프로그램 ‘제이콥’ 주목

전남미래교육재단 ‘꿈 실현 장학사업’ 추진...국제사회와 연대

전남미래교육재단이 추진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제이홉’을 연상하게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14일 지역 인재들이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 실현 장학사업’과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제이콥(J-COP)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이콥’은 전라남도(Jeollanamdo), 연결

(Connection),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형성한 단어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나와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구 생태·환경·국제적 이슈 등을 주제로 해외 청소년들과 진행하는 공동프로젝트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내년 5월 열리는 ‘2024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홍보·안내를 맡을 전남학생외교단을 운영하고, 이들과 해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 ‘제이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방탄소년단을 연상하게 해 친근감을 준다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제이콥에서 제이는 전남의 J로 제이홉과 관련이 없으며, 의도한 것도 아니다”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프로젝트 추진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구·경북 지역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자들이 14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부상자회 경성강원지부 제공>

“80년 5·18’ 이후 투쟁도 보상해야”

광주 찾은 대구·경북 신청자들 “전·노 유죄 판결 전까지로 해야”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을 신청한 대구·경북 지역 신청자들이 14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 보상의 시간적 범위를 확대 적용해 기준을 명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5·18 8차 보상 접수 기간이 3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보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아직도 제시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에서는 5·18 당시보다 이후의 투쟁이 더 많으며, 비상계엄해제 및 전두환 퇴진 투쟁을 외친 농민들을 비롯해 투옥, 고문, 수배, 강제징집, 학사징계 등을 당하면서 투쟁해 왔다”며 “1988년 대구·경북대 학생들이 경남 합천 전두환 생가에 불을 지른 것이 대표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투사들의 역할에도 관심을 갖고 8차 보상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1980년 이후 전두환·노태우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로 넓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강제동원 피해자 대모’ 故 이금주 평전 출판기념회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고(故) 이금주(1920~2021)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의 삶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9층 다목적 강당에서 이 회장의 일대기를 수록한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 <사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고, 피

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 선 고인의 삶을 돌아본다.

이 회장과 고락을 함께 해왔던 일본 지원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재일교포 이양수씨도 참석한다. 정부의 제3차 변제를 반대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103) 할아버지, 양금덕(95) 할머니의 가족도 함께 한다.

출판기념회 행사에서는 이금주 평전 독후감 대회 시상식도 진행된다.

독후감 대회에는 전국에서 22편이 접수됐으며 최고상인 이금주 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전달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